**2015년 12월 4일~6일. 영남퇴계학연구원·도산선비문화수련원 공동주최 (한중일) 국제퇴계학회**

**「생평과 평화, 치유와 영성의 측면에서 본 퇴계학」 발표문**

**『고사기』 이즈모신화에 나타난 스사노오노미코토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치유와 평화를 낳는 생명사상과 영성**

**(『古事記』出雲神話における須佐之男命と大国主神の治癒と平和を生み出す生命思想と霊性)**

**교토대학(京都大学) 카마다 토지(鎌田東二)**

**번역 : 조성환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시작하며 : 나선형 사관史観**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나 저항이 없는 상태로 여겨지고 있다. 천하태평, 즉 세상이 평화롭고 화락和楽한 상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온화하고 즐기면서 생활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평화’를 이루고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고다마 싯다르타도 노자도 공자도 동양의 저명한 사상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실현의 방법과 도道를 제시했다. 하지만 불교에서 정법正法・상법像法・말법末法의 역사관이 있듯이, 불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왜곡되고 쇠퇴해 가는 시대인식이 생기게 된다. 종말론도 그런 예인데, 일종의 비관주의적 ‘하강사관下降史観’이다.

　 나는 진보주의적인 ‘상승사관上昇史観’도 비관주의적인 ‘하강사관下降史観’도, 그 어느 쪽도 ‘역사’라는 것의 빛과 그림자, 음과 양, 창조와 파괴라는 역동성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가설로서 ‘나선형 사관’이라는 역사관을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선형 사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상황을 ‘현대대중여론[現代大中世論]’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 ‘나선형 사관’＝’현대대중여론’은 고대와 근대, 중세와 현대에 공통의 문제들[問題系]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고, 근대와 현대를 고대와 중세의 문제들의 나선형 확대재생산의 시대로 파악하는 사관이다. 고대와 근대의 공통항이란 거대국가의 확립, 즉 제국시대의 도래였다. 고대제국과 근대국민국가의 확립 속에서 패권을 다투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확립을 보고, 식민지지배를 포함한 ‘제국화’의 과정이 진행된 것이 고대와 근대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중세와 현대에는 이중권력이나 다중권력으로 분산되어 권력과 사회체제의 혼란이 심각해진다. 일본에서는 11세기에 ‘말법末法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12세기 이래로 ‘겐페이(=겐源씨와 페이平씨)의 합전合戦’이나 ‘남북조의 난’이나 ‘오닌(応仁)의 난’과 같은 전쟁이 지속되어, 조정・천황과 막부・정이대장군征夷大将軍이라는 이중권력체제가 진행되었다. 서구에서도 십자군전쟁에 의해 교회와 봉건제후로 권력이 분산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대혼란기였지만 종교나 영성・스피리츄얼리티가 자각적으로 파악된 시대로, 이것을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는 ‘일본적 영성’의 발현기라고 보았다. 일본에서는 잇코잇키(一向一揆 = 室町 [시대](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B%9C%EB%8C%80) [말기](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7%90%EA%B8%B0)에 一向宗의 [승려](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A%B9%EB%A0%A4)와 室町 [시대](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B%9C%EB%8C%80) [말기](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B%A7%90%EA%B8%B0)에 一向宗의 [승려](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C%8A%B9%EB%A0%A4)와무로마치시대 말기에 잇코슈一向宗의 승려와 신자들이 지배계급에 항거한 저항운동) 등이 일어나고, 현대의 ‘power spot’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개미의 쿠마노참배’(蟻の熊野詣=긴 행렬을 지어 쿠마노산샤熊野三社에 참배하는 것)나 ‘사이고쿠(西國) 33군데’와 같은 성지영장聖地霊場순례가 유행하였다. 동시에 이 시대에 ‘무연無縁・무상無常’이 시대적 키워드가 되고 있다. 정치경제나 문화방면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반복적으로 맹위를 떨치어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질병이 유행한다. 이런 난세에 돌입한 것이 12세기 이래의 ‘난세＝무인[武者]의 세상’으로서의 중세이다.

‘현대대중여론’이란 먼저 네 개의 ‘연縁’의 붕괴현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그 붕괴에서 재건을 향한 지향과 과제로 특성지워진다. 네 개의 ‘연’이란 ‘지연地縁・혈연血縁・지연知縁・영연霊縁’으로, 이것들이 붕괴되고 있다. 현대에는 한계집락限界集落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나 커뮤니티의 붕괴, 가족 유대의 희박화와 붕괴, 지식이나 정보의 동요와 불확정성, “장례식은 필요없다”거나 ‘무연사회無縁社会’라고 불리는 것처럼, 조상제사나 조상숭배와 같은 관념이나 유대나 의례 등이 의미와 힘을 갖지 못하게 된 상황, 물질적 기반에서 시작하여 영적・스피리츄얼한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연縁’이 붕괴되고 있고, 새로운 효과적인 재건축이나 거대한 디자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중세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구원이나 안심을 탄생시킨 카마쿠라鎌倉 신불교新佛敎나 진혼鎭魂의 예술로서의 노能(사루가쿠申楽)나 다도문화茶道文化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평화’를 만드는 시대와 사상이란 무엇인가? 역사를 하나의 사례와 배움으로 삼아서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일본서기』에 기록된 ‘화의 나라’(和国)의 원점**

일본에서 문헌상에서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자 할 때, 최고最古의 문헌으로 여겨지는 『고사기古事記』(712년 편찬)와 『일본서기日本書紀』(720년 편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고사기』의 특징은 ‘고사기’라는 제목이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실로 ‘고사古事’의 전승세계를 이야기적으로 서사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 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고사古事이야기’의 기록이다. 이에 반해 『일본서기』는 편년체의 역사기록으로, 고전승古傳承의 전승집성·데이터베이스집集이다. 기본적으로 이야기와 기술이라는 문체(스타일)상의 차이가 있다.

덧붙여 말하면 『고사기』에는 불교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다. 일부러 ‘부처’나 ‘불교’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신神’이나 ‘천황’이나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씨족’이야기에 의도적으로 철저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서의 평화실현이야기가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의 제신祭神이 된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의 ‘나라양보国譲り’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고사기』에 나오는 이즈모신화出雲神話의 ‘나라양보이야기’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의 ‘치유이야기’를 중심으로 평화와 치유의 문제의 바탕[原基]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주제에 이르는 사상적 표현을 쇼토쿠태자聖徳太子가 지었다고 하는 「헌법십칠조憲法十七条」로 보고, 먼저 그 조문의 평화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역사를 기록한 공문서인 「육국사六国史」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일본서기』 스이코천황推古天皇 12년(604년) 조에는 쇼토쿠태자가 제정했다(고 전해지는) 「헌법십칠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헌법십칠조」에서는 분명하게 불교를 국시로 도입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일본서기』에 신불습합神仏習合의 원형[原像] 혹은 고대 모델로서 지극히 신격화된 쇼토쿠태자(카미츠미야노우마야도노 토요토미미노타이시上宮厩戸豊聡耳太子)의 상像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이다:

“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다. 성지聖智를 지니고 있었고 성장해서는 한 번에 열 사람의 호소를 곧바로 알아들었다. 미래의 일을 알아차리는 신도적神道的・샤머니즘적 ‘미연지未然知’를 소유하였고, 깨달음의 내면화로서의 불교(내교内敎)와 인예仁禮의 외화外化로서의 유교(외전外典)의 삼교三敎를 겸비하였다.”

여기에서 쇼토쿠태자는 실로 성인·군자·각자覺者 그 자체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정했다고 하는 헌법십칠조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화和를 귀히 여기고 다툼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라. 사람들은 모두 무리[党]를 만들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깨달은[達] 자는 적다.”

첫머리에서 제일 먼저 ‘화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에고, 즉 아我이자 만慢이자 욕欲이다. 그런 ‘아만我慢’이나 ‘아욕我欲’을 누르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화和’ 실현의 이념과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다음의 제2조가 된다.

“독실하게 삼보三寶를 공경하라. 삼보란 불佛・법法・승僧이다. 이것은 곧 사생四生의 귀결[終帰]이자 만국萬国의 으뜸[極宗]이다. 어떤 세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법을 귀히 여겨라. 사람 중에 극악한 자는 드물다. 잘 가르치면 따르게 된다. 이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서 무엇으로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겠는가?”

이 불교야말로 정신적 지주가 되고 지표가 되고 규범이 되는 최고의 규준이다. 그것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신원리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진실로 ‘화국和国’으로서 평화롭고 안심하며 행복에 가득 찬 나라가 될 것이다. 「헌법십칠조」의 제2조에서 일찌감치 그렇게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십칠조」의 제1조와 제2조에서 ‘화和의 나라’의 방향성과 기본방침과 근본원리가 제시되었다. 덧붙여서 이 불교적인 정신원리는 제10조와 제14조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제10조의 “분노(忿∙瞋∙怒)를 버려라”나 제14조의 “질투를 버려라”와 같은 가르침이 그와 같은 예이다.

“분忿을 끊고 진瞋을 버리고 남이 자기와 다르다고 화내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각각 집착이 있다. 상대가 옳으면 나는 그르다. 내가 옳으면 상대는 그르다. 내가 반드시 성인인 것은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모두 범인일 뿐이다. 시비是非의 이치를 누가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가 현자와 우인愚人인 것은 마치 둥근 고리(鐶)에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화내더라도 자기를 돌아보며 잘못이 없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도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라.”(제10조)

“모든 신하와 관료는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남을 질투하면 남도 나를 질투한다. 질투의 우환이 끝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보다 나으면 기뻐하지 않고, 재능이 자기보다 뛰어나면 질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는 500년이 지나도 현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1000년이 지나도 성인[一聖]을 기다리기가 어렵다. 성현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제14조)

이와 같이 「헌법십칠조」에서는 ‘화和’의 실현을 위해서 ‘분노(忿・瞋・怒)’와 ‘질투’의 억제가 마음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형성하는 양극(축)이 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예’의 중요성이 설파되고 있고(“예禮를 근본으로 삼아라”), 제9조에서는 ‘믿음’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신信은 의義의 근본이다”), 「헌법십칠조」에서는 유교적인 도덕가치와 불교적인 마음의 정화법이 모두 채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하는 것은 예로부터의 좋은 모범이다. 타인의 선을 숨기지 말고 악을 보면 반드시 바로잡아라. 기만하거나 속이는 자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병기[利器]이자 인민을 멸망시키는 사악한 칼이다. 또한 아첨하는 자는 윗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윗사람의 실책을 비방한다. 이런 사람은 모두 임금에 대한 충성도 백성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런 사악한 마음이 횡행하면 국가의 대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

1947년 5월 3일(헌법기념일)에 시행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국헌법은, 전쟁의 포기와 ‘영구평화’를 구가하고 주권재민이나 기본적 인권 그리고 자유 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평화헌법」은 ‘평화’의 이념만을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정신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화和’를 낳는 ‘마음’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일본국헌법은 법과 이념만 설파하고 있을 뿐,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마음’에 대한 통찰은 부족하다. 반면에 『일본서기』에 기록된 「헌법십칠조」에는 ‘화和’를 낳는 정신원리가 불교나 유교의 이론과 구체적 처방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명확하고 깊은 시사와 구체성이 풍부한 통찰에 기초한 정신원리와 지침이다.

『일본서기』에 제시된 ‘화和의 나라’라는 이념이나 비전에 대응하는 부분은 『고사기』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나라양보’ 행위와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혁명이나 패권쟁탈이나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라양보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혈혁명적인 비폭력 정권교체이기 때문이다. 대립과 전쟁을 피하고 나라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치자를 교체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적 앞에서 도망치는 가장 약한 태도처럼 보이기 쉽다. 대부분은 이전 왕권을 타도하고 새 왕권의 수립을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사기』(상권)에서는 그런 대립이나 격렬한 전쟁 또는 난을 이야기하는 일은 없다. 평화적으로 왕권교체를 하면서 전왕前王과 신왕新王의 역할구분과 거주구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특이해 보이는 『고사기』의 나라양보 장면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2. 『고사기』에서의 ‘화和’의 실현으로서의 나라양보**

『고사기』(상권)의 최대의 혼란과 갈등은 아마노이와토天岩戸(=천상의 바위굴) 신화와 나라양보 신화이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가 축제의 창출과 나라양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제’의 창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에서는 태양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가 아마노이와토天岩戸에 은신함으로써 암흑세계의 출현과 전 생명의 위기가 이와토岩戸 (=바위굴)앞에서의 축제의 시행에 의해 타개되고, 후자에서는 전쟁의 발발이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의 창건과 축제에 의해 피해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지상세계)의 통치자인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가 스쿠나비코나노카미少名毘古那神와 협력하여 열심히 만든 나라를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邇邇藝命에게 양보하는 이야기이다. 통상의 전쟁이라면 약탈이나 정복이 될 터인데, 여기에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나라양보’라는 특이한 화해책이 고안되고 있다.

그래서 ‘평화’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나라양보는 대단히 흥미로운 정신성과 사상성과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나라양보신화는 다양한 장면에서 일본인의 의사결정이나 태도표명에 미묘하고 결정적인 영향과 원형적인 제약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나라양보를 ‘첫 번째 나라양보’라고 한다면, 막말幕末・메이지유신기明治維新期의 대정봉환大政奉還이라는 정치적 결정은 ‘두 번째 나라양보’이고, 태평양전쟁에 패하고서 무조건항복이라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것은 ‘세 번째 나라양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일본역사의 마디마디를 관통하고 있는 이 나라양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양보라는 불가사의한 업을 실현한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지극히 일본적인 신神이다.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가 격렬하게 싸우는 공격적인 전투적 신이라고 한다면,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싸우지 않는 신, 부전不戦과 화해・화목을 낳는 신이다. 이것이 이후에 ‘중매[縁結び]의 신’으로 여겨지는 근원적인 이유일 것이다. 자신의 의사결정과 주체성에 의해 달성되는 신이 아니라, 다양한 자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 국토개척의 대사업인 나라만들기를 이룩하고 거대한 화和와 협조를 낳는 신, 싸움에 의해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작과 협조에 의해 화락和樂의 세계를 구축하는 신성神性과 신덕神徳을 지닌 신이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인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고사기』에 나타난 나라양보이야기의 흐름을 추적해 보자.

(1)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를 자기 아들 아메노오시호미미노미코토天忍穂耳命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정해서 파견을 명했는데, 하늘의 부교浮橋에 서서 하계下界를 내려다 보자 너무나 소란스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이 파견되게 되었다.

(2) 그래서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巣日神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모든 신들을 모아 놓고 누구를 파견해서 ‘설복(言趣け)’시켜야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아메노호히노미코토天菩比命가 좋다고 하여 파견되게 되었는데, 오오쿠니누시노카미한테 아첨하여 명령을 어기고 3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3) 그러자 다시 다카기노카미高木神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다음에는 어떤 신을 파견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다음은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가 좋다고 하여, 아메노와카히코에게 아메노마카코유미天之麻迦古弓와 아메노하하야天之波波矢를 주고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에 파견했는데, 아메노와카히코는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딸인 시타테루히메下照比売와 결혼하여 다시 명령을 어기니, 이번에는 8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4) 그래서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와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巣日神가 다음은 어느 신을 파견해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좋을까라고 묻자, 키지노나키메雉鳴女가 좋다고 대답하자, 가서 이유를 물어오라고 명령했더니, 이 사실을 미리 안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는 아마츠카미(天の神)으로부터 받은 아메노마가코유미天之麻古弓와 아메노하하야天之波波矢를 사용하여 키지노나키메雉鳴女를 사살射殺하였는데, 그 화살이 다카마노하라高天原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다카기노카미高木神(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巣日神)가 그 피 묻은 화살을 하계에 다시 던지자, 화살이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에게 맞아 아메노와카히코가 죽고 말았다.

(5) 그래서 다시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가 다음에는 누구를 파견하면 좋을까라고 묻자, 타케미카즈치노오노카미建御雷之男神가 좋다고 하자,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建御雷神와 아메노토리후네노카미天鳥船神를 파견하여 협상하게 하였다.

(6) 이렇게 해서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建御雷神와 아메노토리후네노카미天鳥船神는 이즈모노쿠니出雲国의 이나사伊那佐의 오바마小浜에 내려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에게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의 자손이 통치해야 하는 나라이다”라며 나라를 내주라고 촉구했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아들인 코토시로누시노카미事代主神에게 묻자, 코토시로누시노카미는 “이 나라는 아마츠카미(天つ神)의 아드님에게 바친다”고 승복하고, 배를 기울여 아마노사카테(天の逆手=박수)를 쳐서 신령神霊이 깃든 푸른색 울타리(青柴垣)로 변하여 바닷속으로 숨었다.

(7) 반면에 다른 아들인 타케미나카타노카미建御名方神는 당장은 승복하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하자고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建御雷神의 손을 잡자 그 손이 고드름이 되어 검으로 변하였다.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가 타케미나카타노카미의 손을 꽉 잡고 내던졌기 때문에, 타케미나카타노카미가 두려워 도망쳐서 시나노노쿠미科野国(信濃) 스와노우미(州羽の海=諏訪)까지 달아난 뒤에 “이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는 아마츠카미(天つ神)의 아드님 명령에 따라서 바칩니다”라고 하고, 그 땅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8) 그래서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建御雷神는 이즈모出雲로 돌아와서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에게 [나라를] 내줄 것을 재차 촉구하자,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제 아들들의 말에 따라서 저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이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는 아마츠카미(天つ神)의 아드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는 곳으로, 아마츠카미의 아드님이 행정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궁전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 아들들 모모야소가미百八十神는 야에코토시로누시노카미八重事代主神가 신의 미오사키御尾前로 사용하신다면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倉野憲司 読み下し. 岩波古典文学大系本)라고 국토헌상(나라양보)을 약속했는데, 그 때 거주지[住所]로 천신의 아들[天神の御子]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대한 궁전을 세우는 것을 교환조건으로 삼았다.

(9) 그래서 이즈모出雲의 타기시多芸志의 해변에 거대한 궁전 아메노미아라카(天の御舎)를 세우고 아메노미아에(天の御饗)를 바쳤다.

(10) 그 뒤 얼마 안 있어 타케미카지치노미코토建御雷神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 의 평정을 끝내고,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를 고토무케야와시(言向け和平し)하는 모습을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보고하고, 이로 인해 마침내 니니기노미코토天孫邇邇藝命가 아마쿠다리(天下り=천손강림天孫降臨)하게 되었다.

『고사기』는 이와 같은 나라양보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이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나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巣日神(타카기노카미高木神)나 오모이카네노카미思金神와 같은 아마츠카미(天つ神)의 초월적인 명령은 그 곳에 살고 있던[先住] 나라양보신들에게 있어서는 아닌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나라훔치기(国盗り)’ 내지는 ‘나라빼앗기(国奪い)’의 명령이자 행위로도 보인다. 그런데 이 명령과 행위는 ‘설복(言趣け)’ 내지는 ‘설복화평(言向け和平す)’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나라의 양도가 무력투쟁에 의해 뺏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천신들(天の神々)의 총의総意와 명령에 기초하여 외교교섭에 의해 평화적으로 양보해 받은 것이라는 경위설명이자 정치신학적 선언이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는 불합리한 이 명령에 대해서 무력행사로 방어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뒤로 미루고 두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령에 따라 이미 바쳤다”고 국토헌상을 약속하고, 그 교환조건으로 ‘아메노미아라카天御舎’, 즉 이후의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의 창건을 제시하였다.

　 『고사기』에는 이 나라양보 대목이 실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즈모신화出雲神話에도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 이상으로 상세하게 나라만들기와 나라양보의 신인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국의 정사正史인 『일본서기』에는 오오쿠니누시노카미 기사는 거의 없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라는 이름은 『일본서기』 제1권 신대神代(上) 제8단 제6의 「일서왈一書曰」속에 “일서一書에서 말하기를,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오오모노누시노카미大物主神라고도 하고, 쿠니즈쿠리오오아나무치노미코토国作大己貴命라고도 부르며, 야치호코노카미八千戈神라고도 일컫고, 오오쿠니타마노카미大国玉神라고도 말하며, 우츠시쿠니타마노카미顕国玉神라고도 한다. 그의 아들은 모두 합해서 181명이다.”라고만 나올 뿐이고, 다른 곳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서기』에서는 ‘오오나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고사기』에서는 ‘나라만들기신神’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일본서기』에서는 그런 위치지음도 공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오오쿠니누시노카미에 대한 기술도 나라양보에 대한 서술도 크게 달라진다. 『일본서기』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제6의 일서一書에 오오나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가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彦名命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해서 ‘천하경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제6의 일서一書는 『일본서기』 제1권 신대神代(上)의 마지막에 나오는 전승이다. 여기에 약간 오오나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가 ‘나라만들기’가 아니라 ‘천하경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즈모노쿠니풍토기出雲国風土記』(733년 편찬)에서는 『고사기』나 『일본서기』와는 달리, 일관적으로 ‘아메노시타츠쿠라시이오오카미오오아나모치노미코토(所造天下大神大穴持命)’라고 존칭되고 있다. 이 세 텍스트에서의 전승상의 큰 차이는 대단히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이즈모신화出雲神話의 위치가 『고사기』에만 특유의 상세함이 있고, 거기에서 나라양보 과정에서 “설복하여 화평한다(言趣向け和平す)”고 하는 일종의 정치신학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이 아니라 ‘화和’의 창출을 낳는 사태이자 설명언어이다. 이상이 『고사기』에서의 전쟁회피의 “설복화평(言向和平)＝나라양보(国譲り)”라는 ‘화평和平’사상이다.

　 한편 『고사기』의 이즈모신화는 특이한 두 신격神格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가 그것이다. 전자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계략이 뛰어난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한껏 표현된다.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여기에서 최대최고의 폭력의 소유자이자 전쟁기계이다. 그리고 이 최대폭력 내지는 전쟁기계가 야마타노오로치(八俣大蛇=꼬리가 여덟개 달린 이무기)를 퇴치하여 ‘와카和歌(=短歌)’를 노래한다. 이 와카和歌야말로 설복(言向和平=고토무케야와시)의 복선이 된다.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난폭함을 행사하여 추방된 스사노오는 이즈모 땅에 내려와, 야마타노오로치八俣大蛇를 퇴치하여 일본 최초의 시를 짓고 노래하는 문화영웅신神이 되었다: “구름이 겹겹이 피어난다는 이즈모국에 겹겹이 친 울타리처럼 구름이 피어오른다. 아내를 숨기려고 궁전에 겹겹이 담을 쳤지. 마치 그 겹겹이 친 울타리처럼.”(八雲立つ,　出雲八重垣.　妻籠みに,　八重垣作る.　その八重垣を)

스사노오노미코토에게 퇴치되는 팔두팔미八頭八尾의 괴물 야마타노오로치는 눈이 빨갛고 몸에는 이끼(苔), 노송나무(檜), 삼나무(杉)가 무성하며, 체구는 여덟 개의 골짜기에 걸칠 정도로 거대하고, 매년 나타나서 아름다운 처녀를 잡아먹는다. 그 모습은 무섭고 거대한 괴물로 끔찍한 거대폭력을 행사한다. 그 거대폭력을 봉쇄하고 노래를 불러 평안의 세계를 만든 것이 스사노오노미코토라고 한다면, 그를 평화신平和神 중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어릴 때부터 이미 울부짖으면서 청산青山을 고산枯山으로 만들고 바닷물을 마르게 한 거대한 폭력신이기도 하였다. 입이나 엉덩이에서 먹을 것을 내놓은 오오게츠히메오카미大気都比賣神를 더럽다고 죽이고, 야마타노 오로치八俣大蛇도 술을 먹여 죽여버린다. 그래서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일본신화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잔학한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 ‘난폭한 신,’ ’기가 센 신’의 전형이 스사노오이다. 실제로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는 ‘무도無道,’ ‘성잔해性残害,’ ‘성악性悪’과 같이 악신적悪神的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하고 난폭한 에너지 넘치는 스사노오노미코토와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크게 다르다. 『고사기』의 이즈모신화의 후반부는 이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주인공이 된다.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살해하는 신인데 반해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살해되는 신이다. 『고사기』에는 두 번이나 형신兄神들의 질투에 의해 살해되고, 그 때마다 엄마나 할아버지인 카미무스비노카미神産巣日神의 힘으로 소생한다. 이처럼 완전히 대조적인 신성神性을 지닌 두 신이 이즈모신화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고사기』에서는 스사노오노미코토의 제6대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서기』에서는 실제 자식신[子神]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지간에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의 주제신主祭神이 된다. 원래 ‘이즈모出雲’라는 땅은 타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내려온 천손일족天孫一族(천황가의 조상)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마츠카미(天つ神々)에 대해서, 그 곳에 살고 있던 쿠니츠카미(国つ神々)의 최대 거점지였다. 그리고 그 쿠니츠카미를 묶어주는 누시노카미(主神)가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였다.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고사기』에서는 오호나무지나 아시하라시코오나 야치호코나 우츠시니타마와 같은 5개의 별칭을 갖고 있고, 스쿠나비코나노카미少名毘古那神와 협력해서 나라만들기(国作り)에 힘쓰며 국토개발과 천하경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天孫族(천황가의 조상신)에게 그 나라를 양보하였다. 일본은 이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나라양보에 의한 아마츠카미(天つ神々)와 쿠니츠카미(国つ神々)의 협정에 의해 성립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나라양보에 대한 일종의 대가 내지는 교환조건으로 이즈모出雲에 일본 제일의 거대신전인 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를 세웠다. 『고사기』는 아메노미아라카天御舎인 키즈키타이샤 창건을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서기』 「신대神代(下)」 제9단 제2의 일서왈一書曰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두 신(=후츠누시노카미経津主神와 타케미카즈치노카미武甕槌神)이 이즈모出雲의 오십전협五十田狭의 작은 해협에 내려와서 오오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에게 물었다: “그대는 장차 이 나라를 아마츠카미(天神)에게 바치겠는가?” 그러자 “그대 두 신의 말은 의심스럽다. 내가 전부터 있던 곳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 허락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후츠누시노카미経津主神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그 때 타카미무스히노미코토高皇産霊尊가 두 신을 다시 보내어 오오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에게 말씀드렸다: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이치에 크게 합당하다.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명령하겠다. 그대가 다스리는 속세의 일[顕露之事]은 나의 손자가 다스릴 것이다. 너는 신의 일[神事]을 맡도록 하여라. 그대가 거주해야 할 아마노히스미노미야天日隅宮는 지금 지으려고 한다. 천심千尋이나 되는 고승栲縄(=북나무로 만든 밧줄)으로 튼튼하게 잡아매도록 하겠다. 궁을 만드는 방식은 기둥은 높고 굵게 하고, 판은 넓고 두껍게 하겠다. 그리고 밭도 만들어 주겠다. 또한 그대가 왕래하는 바다에 가기 위한 도구로 고교高橋・부교浮橋 그리고 천조선天鳥船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아마노야스노카와天安河에 다리를 만들겠다. 튼튼한 백순白楯을 만들겠다. 네가 제사지낼 자는 아마노호히노미코토天穂日命이다.”

이에 오오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마츠카미天神의 가르침이 이렇게 정중하시니 감히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렸던 현세의 일[顕露事]은 황손皇孫이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물러나서 유사幽事(=신의 세계)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나토노카미岐神를 두 신에게 추천하며 “이 신이 나를 대신하여 섬길 것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고, 몸에 상서로운 야사카니八坂瓊의 옥을 걸고 영원히 숨어버렸다.”(日本古典文学全集本. 한글 번역은 연민수, 김은숙 외 역, 『역주 일본서기1』 동북아역사재단, 2013. 215~6쪽 참조）

　 주목해야 할 전승이다. 여기에서는 분치적分治的인 계약이 오가고 있다. 천신天神의 명령을 받은 후츠누시노카미経津主神와 타케미카즈치노카미武甕槌神는 오오아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에게 나라양보(=국토봉환)를 요청한다. 그 때 오오아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는 일단은 협박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로 당돌한 요청을 거절한다. 하지만 그것을 복명復命하여 두 번째 협상에 임해서 교환조건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현재 오오아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가 통치하는 아라와고토(顕露之事＝천하경영)를 아비코(吾孫)에게 맡기고, 앞으로 신의 세계[神事]를 맡아 주면 훌륭한 아메노히스미노미야天日隅宮를 지워주고 밭을 만들게 하고 놀기 위한 다리와 배도 만들고, 제사자祭祀者로서 아메노호히天穂日命를 임명한다는 조건의 제시였다. 오오아나무치노카미大己貴神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기 대신에 모실 사람으로 후나도노카미岐神를 추천하고, 앞으로는 유계幽事(=신의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은둔하여” 물러난 것이다.

　 『일본서기』 신대神代(下) 제9단에서, 본문(본서)이 아닌 제2의 일서一書 속에서 실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이 통치자 교체극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통치자의 교대는 일종의 정권교체이지만,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니다. 무력혁명도 전쟁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교섭에 의해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세계를 분할・분치한다고 하는 계약적 화목이었다. 『일본서기』에는 없지만, 『고사기』는 이 교섭과정을 “설복화평(言向和平=고토무케야와시)”이라고 기록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천손족天孫族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다수의 사상자가 생겨서 쌍방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승리자의 권력이 떨쳐져 패자는 멸망하거나 살아남았다고 해도 깊은 반목과 증오가 남아서 후대[末代]에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전건축과 제사와 향응과 신에 대한 의례[神事＝幽事]의 분담・분치分治는 또 하나의 생존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전쟁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목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절묘한 제휴와 거주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일본 최고最古의 텍스트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그와 같은 지극히 특수한 ‘화평和平’ 방식에 대한 두 종류의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키즈키타이샤杵築大社는 일본 최대의 신사건축이 되었다. 그 이상할 정도의 높이에는 놀랄 수 밖에 없다. 고대에는 일본 최고의 고층건축이었다. 지진대국, 태풍대국 일본에서 몇 번이나 지진이나 강풍으로 부서졌다가 재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대 세계의 거대건축물 중에서도 단연 불안정한 구조물이 이 이즈모신전出雲神殿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거대함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양보라고 하는 설복화평(言向和平)의 거대함과 기묘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즈모에서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래로 10월 칸나즈키神無月를 특별히 카무아리즈키神有月라고 부르는 풍습이 퍼진다. 매년 음력 10월에는 일본 전국의 신들이 이즈모 땅에 모여서 1년간의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즈모에서만 10월을 ‘칸아리즈키神有月’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칸나즈키神無月’라고 불러 구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생존전략은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숨어서 영원히 살아 남아 ‘중매의 신’으로 존숭받게 되었기 때문에 - .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60년째 ‘헤이세이平成의 대천궁大遷宮’에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수많은 참배자들로 떠들썩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신의 은혜[御神徳]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세계[幽事・神事]에 대한 심원한 생각[深謀遠慮]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영성이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幽]의 세계인 이즈모(=이자나기노미코토伊邪那岐命－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 진혼鎭魂의 서書로서의 『고사기』의 존재의미가 거기에 담겨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치유술**

앞에서 서술했듯이,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고사기』에서는 가장 많은 이명異名을 갖고 있는 신神이었다. 원래 이름은 ‘오호나무지노카미大穴牟遲神’로, 이것은 ‘커다란 구멍을 가진 위력적인 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외에도 ‘아시하라노시코오노카미葦原色許男神・하치호코노카미八千矛神・우츠시쿠니타마노카미宇都志国玉神’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

　 이 ‘오호나무지’에게는 ‘야소가미八十神’라고 불리는 많은 형신兄神들이 있었는데, 오호나무지는 막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힘쓰는 일을 강요당했다. 이 형제신들은 모두 이웃나라인 이네바노쿠니稲羽国의 야가미히메八上比売에게 구혼하러 갔다. 이 때 오호나무지는 형신兄神들의 짐을 전부 지고 맨 뒤에 따라갔다.

　 케타노미사키(気多の岬)까지 오자 ‘흰토키(素兎. 因幡の白兎)’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오호나무지가 ”왜 울고 있니?”라고 묻자, 흰토키는 상처를 입은 이유를 말하고, 앞에 지나간 형신兄神들이 가르쳐준 상처치유법대로 하자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오호나무지는 흰토키의 이야기를 듣고 “강에 가서 진수真水로 몸을 잘 씻고 부드러운 부들꽃[蒲黄]을 풀 위에 깔고, 그 위에 뒹굴면서 몸을 쉬게 하면 상처입은 피부가 원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흰토끼가 그대로 하자 상처는 낫고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그래서 흰토키가 답례로 “당신은 반드시 형신兄神들을 제치고 야가미히메八上比売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반드시 영광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고 축복의 말을 해주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잘 알려진 이나바稲場의 흰토키 신화이다.

　 이 장면에서 오호나무지는 의료신이자 치유신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서기』 본문에서는 의료신으로서의 오오쿠니누시노카미를 “우츠쿠시키아오히토쿠사마타캐모노顕見蒼生及畜産’를 위해서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했다. 그리고 조수곤충鳥獣昆虫의 피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는[禁厭] 법을 정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두 은덕[恩頼]을 입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병을 치료하고 온갖 재앙을 쫓기 위한 주술법[呪法]을 정하여 전수하였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이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대동大同 3년(=808)에 편찬되었다고 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의학서인 『대동유취방大同類聚方』의 텐랴쿠료본典薬寮本에는 일본 의료도医薬道의 조상으로 오오나무치노미코토大穴牟智命와 스쿠나히코나少彦名命와 타케시우치노스쿠네武内宿禰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 일본 의료신神으로 오호나무지노미코토, 즉 오오쿠니누시노카미가 열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의미와 까닭이 있다.

　 왜냐하면 오호나무지는 “살해되었다 다시 살아난 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오호나무지(=大国主神)는 이집트신화의 오시리스(Osiris)와 흡사하다. 먼저, 오시리스는 생산신生産神으로 사람들에게 보리나 빵이나 와인 작법을 가르쳤다. 이 점은 의료신이자 나라만들기신으로 존숭받은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공적이나 신덕神徳과 공통된다. 두 번째로 지혜의 신인 토토의 도움을 받아 국토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점이 스쿠나히코나小名彦命의 힘을 빌려 나라만들기를 한 오오쿠니누시노카미와 공통된다. 셋째로 오시리스는 동생인 세토에게 살해되어 시체가 조각조각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누이동생이자 아내인 이시즈가 건져준 덕분에 부활하게 된다. 이에 반해 오호나무지는 형신兄神들에게 두 번씩이나 살해되는데, 엄마신(母神)들에 의해 불에 타죽은 몸을 조개(貝) 속에 넣고 ‘엄마젖’을 넣어주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신, 재생하는 신이라는 점이 공통된다. 넷째로 오시리스는 신들의 세계[冥界]의 왕이 되는데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천손天孫 니니기노미코토에게 나라양보하고 신들의 세계[幽世]의 신이 되는 점이 공통되고 있다. 오시리스신과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비교신화적 연구는 그 자체로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로, 둘 다 죽음과 재생의 신이자 신들의 세계[幽冥界]의 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두고자 한다.

　『고사기』에 나오는 재생하는 오호나무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나바因幡의 흰토키는 오호나무지가 야카미히메八上比売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예언하였고 그대로 되었는데, 오호나무지는 이 일로 형신兄神들의 맹렬한 질투와 따돌림과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두 번이나 살해된다. 첫 번째는 오호나무지가 형신兄神들로부터 위에서 멧돼지를 몰을테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아 죽이라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하고 있었더니, 형신兄神들이 떨어트린 새빨갛게 탄 큰 돌이 굴러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서 타 죽고 만다.

　 형신兄神들은 동생의 죽음에 크게 기뻐했는데, 엄마신母神인 사시쿠니와카히메刺国若比売는 탄식하며 울다 하늘로 올라가서 카미무즈히노미코토神産巣日之命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카미무스히노미코토는 새고막신赤貝神인 키사가히히메 貝比売와 대합신蛤神인 우무기히메蛤貝比売를 보내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키사가히히메는 뿔뿔이 흩어져버린 오호나무지의 시체를 모았고, 우무기히메가 그에게 모유母乳를 바르자, 원래대로 멋진 남자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보면, 엄마신인 ‘미오야노카미＝사시쿠니와카히메’ 가 무스히의 힘으로 오호나무지를 재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즈모出雲의 조신祖神인 ‘카미무스히’의 신神의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오호나무지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신이 된다.

　하지만 이 재생을 보고 점점 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것이 형신兄神들이다. 형신兄神들은 다시 한 번 책략을 짜서 오호나무지를 산 속에 유인하여 대목大木을 잘라서 나무에다 물에 데친 화살(茹矢)의 쐐기를 꽂고, 그 나무의 갈라진 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쐐기를 뺀 뒤에 오호나무지를 나무 사이에 끼워 죽였다.

　이것을 안 엄마 사시쿠니와카히메刺国若比売는 다시 한 번 울면서 시체를 나무에서 빼내어 다시 한번 부활시켰다. 그리고 이대로는 오호나무지의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형신兄神들의 술책을 두려워하고 조신祖神 스사노오가 있는 네노카타스쿠니根堅洲国에 가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오호무지는 네노쿠니(根の国)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당당한 신이 되어 조신祖神 스사노오로부터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졸저 『초역超訳 고사기古事記』(ミシマ社)나 『고사기古事記원더랜드ワンダーランド』(角川選書)를 참고하기 바란다.

　 결론만 말하면,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네노쿠니(根の国)에서 스사노오에게 가혹한 시련과 과제를 부여받지만, 그것들을 모두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비메須勢理毘売의 호의와 도움으로 헤쳐나가고, 통과의례를 거쳐서 스사노오가 지닌 ‘이쿠타치(生太刀)・이쿠유미야(生弓矢)・아메노노리고토(天詔琴)’라고 불리는 삼종三種의 신보神宝와 스세리비메를 획득할 수 있었다. 스사노오는 오호나무지에게 “앞으로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라는 이름이나 우츠시쿠니타마노카미宇都志国玉神라는 이름을 쓰고, 딸인 스세리비메須勢理毘売를 정처正妻로 삼아 대지의 밑바닥까지 닿는 두꺼운 궁주宮柱를 세우고, 타카마노하라高天原에까지 닿는 치기千木를 하늘 높이 세운 멋진 궁전을 만들어 나라의 대왕이 되어라”라는 승인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오호나무지는 오오쿠니누시노카미大国主神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즈모에 돌아와서 형신兄神들을 징벌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다. 스사노오로부터 얻은 이쿠타치生太刀와 이쿠유미야生弓矢는 용감한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위력을 나타내고, 아메노노리고토天詔琴는 노래를 부르고 신언神言을 주상奏上하여 신神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치유하는 언령력言霊力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힘과 노래에 의해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훌륭하게 이즈모국(出雲の国)을 다스리고, 노래의 힘을 빌려 호색신好色神으로서 많은 사랑을 하여 180주柱나 되는 자식[子神]들을 낳고, 이즈모국(出雲の国)을 풍요롭게 하여 나라만들기 신이 되어 번영시킨 것이다.

　생각해보면 오호나무지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조상인 무스히신의 도움을 받고, 아내가 된 스세리비메의 도움을 받고, 쥐나 스쿠나비코나少彦名神의 도움을 받는 등,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완성시켜 나라만들기신神이 되었다. 따라서 오오쿠니누시노카미는 의심할 바 없이 다양한 힘을 이끌어내고 연결시켜 나가는 코디네이터, 즉 ‘중매신神’이다.

　고래古来의 신도神道의 생명관을 생각할 때에, 무스히와 슈리코세修理固成와 의료신으로 재생하는 유세幽世의 신神인 오오쿠니누시노카미의 작용과 솜씨는 대단히 커다란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다.

**맺으며 : 평화의 기술(arts of peace)의 창출과 실천을 지향하여**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생존과 자유가 위협받는 일 없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삶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달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 최고最古의 문헌인 『고사기』에는 그러한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나라양보’와 신도적神道的 ‘축제’로 묘사하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문헌인 『일본서기』에서는 「헌법17조」와 불교적 ‘마음의 기술학’으로 명문화明文化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체・국가치유로서의 신도神道와 사회치유로서의 유교와 마음치유로서의 불교의 통합이 『일본서기』의 「헌법17조」에 제시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원리나 영성적 지향을 어떻게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을까?

　 2007년 11월에 우리(小林正弥, 千葉眞, 西田清志, 鎌田東二)는 「지구평화공공네트워크」(Network for Global Public Peace)를 결성하고 「결성취지서[結成趣意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지구적 공공성의 관점에 기초한 평화네트워크를 결성합니다. 그것은 다양성의 존중에 기초하는 느슨한 자발적 결합입니다. 이성과 감성, 지성과 정신성・예술성・신체성, 생활세계와 공공세계를 맺기 위해서, 「발로 뛰며 헌법 제9조를 생각하는 모임」과 「공공철학네크워크의 유지有志」가 각각의 표현형태를 살리면서 공통의 목적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発起人:　鎌田東二・小林正弥・千葉真・西田清志）

　그리고 ‘우리가 뜻을 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1. 우리는 각자의 ‘생명’의 평안과 기쁨이 느껴질 수 있는 지구평화와 공공세계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합니다.

2. 우리는 생활자生活者의 시전에 서서 바로 눈앞의 지혜를 살려 지구평화와 공공적 가치를창조해 나갈 것을 지향합니다。

3. 우리는 개개의 자립과 다양한 타자의 공동성을 함께 존중하고 지구평화를 위한 느슨한 우애友愛네트워크를 공공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4. 우리는 일본국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영구비전非戦”이라는 지구평화의 이념에 대해서, 그 문명사적 의의와 공공적 가치를 보다 한층 강하게 세계의 공론에 호소해 나갈 것을 지향합니다.

5. 우리는 지구평화의 표현을 위해서 평화대강大綱을 작성하고, 비폭력적인 공공적 활동을 하며, 살아있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평화의 기술(Art of Peace)을 만들어 나갈 것을 지향합니다.

（発起人 :　鎌田東二・小林正弥・千葉真・西田清志）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흐름은 커다란 운동이 되지 못하고, 지금은 어디에도‘안전’도 ‘안정’도 없는,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상외[想定外]’가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와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전쟁의 시대’이자 ‘현대대중세現代大中世’와 같은 혼란기일수록, 더더욱 ‘평화술(Art of Peace)’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수법도 그 중 하나이지만, ‘나라양보’에 동반되는 ‘축제’나 스사노오노미코토가 노래한 ‘와카和歌’나 예술이나 예능도, 넓은 의미에서의 ‘치유’와 ‘평화’로 인도하는 ‘평화의 배우[ワザヲギ]’이자 ‘평화를 낳는 심술학心術学’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술과 도를 쉬지 않고 실천하고 싶다.

参考文献： 鎌田東二企画・編 『講座 スピリチュアル学』 全7巻. BNP, 2014～2016年